

간다라 불두에서 신중까지 불교문화를 엿보다

여름 휴가·방학 맞아 가볼만한 불교 전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이 왔다.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불교 관련 전시장을 찾아 역사공부도 하며 문화적 안목을 높여 보는 건 어떨까?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아시아의 불교미술' △울산 대곡박물관의 '기와가 알려주는 울산 역사-성(城)과 사(寺)의 성쇠' △원주고판화박물관의 특별전 '일본 고판화의 세계' △만해기념관의 '남한산성 역사·문화 특별전' △직지성보박물관 '신중(神衆)을 만나다' 등 다양한 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아시아불교에서 신중까지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조각, 회화, 공예 등의 불교미술을 통해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8월 2일까지 '아시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를 진행한다. 불두 등 120여 점의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미술이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꽃피었는지를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의 4부로 나누어 소개한다. 간다라에서 출토된 불두를 비롯해 칠기로 제작한 화려한 공양구와 경전과 경상,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의 티베트 불화 탕카와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각종 법구 등을 만날 수 있다. (062)570-7000

울산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입암리 사지 등에서 삼국시대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받아왔다. 울산대곡박물관이 '기와가 알려주는 울산 역사-성(城)과 사(寺)의 성쇠' 전을 9월 13일까지 개최한다. 4부로 구성된 전시는 △절터 기와와 사찰의 성쇠 △성터 △울산의 기와 생산과 공급 등을 통해 울산의 기와 16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절터 기와와 사찰의 성쇠'에서는 울산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절터 가운데 영축사지, 운흥사지 출토 기와와 대곡천 유역의 방리 사지(백련사지)와 장천사지 출토 기와를 전시한다.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영축사지 출토 기와 등은 해당 사찰의 역사와 흥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052)229-6638

불교에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 외에도 범천·제석천을 비롯한 다양한 천인(天人)들과, 인왕, 사천왕, 팔부종 등 수많은 호법신들이 있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 '신중'이다.

직지성보박물관의 '신중(神衆)을 만나다'는 70여 점의 유물을 통해 신중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범천·

제석천·사천왕이 음각되어 있는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 (국보 제208호)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축산 설법을 외호하면서 경청하는 불보살·신중의 모습을 담은 '수다사 석가모니후불탱' (보물 제1638호) △청암사 신중탱(경북 유형문화재 제416호) 등이 전시된다.

광주박물관-아시아의 불교미술
고판화박물관-일본고판화의 세계
직지성보박물관-신중을 만나다
대곡박물관-사찰 등의 기와 전시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의 불교미술'전의 간다라 불두(2세기 파키스탄)



범천·제석천·사천왕이 음각되어 있는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 (국보 제208호)

또한, 직지사 사천왕문 및 사천왕상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사천왕 복장과 더불어 사천왕초 등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유물이다. 이외에도 신중이 새겨져 있는 모법연화경 변상도 경판과 다양한 전적(典籍)도 선보인다. (054)429-1720

원주고판화박물관도 특별전 '일본 고판화의 세계'를 7월 7일~8월 30일 개최한다. 일본 고판화 10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유교의 소설, 화보류 등의 목판본 삽화 30여점 △판경변상도 등 불화판화 20여점 △불교 및 신도 관련 부



울산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입암리 사지 등에서 삼국시대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받아왔다. 사진은 울산 대곡박물관에서 전시중인 '영축사지 출토 연화문수막새'

적 판화 20여점 △일본 우키요에(목판화) 30여점을 선보인다. 고판화 박물관은 전시에 앞서 한일 국제학술대회와 한일 전통판화 명인 시연회 등을 7월 5일~6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고려 문인 이달충의 <제정집> 초간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033)761-7885

만해기념관에서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남한산성 역사·문화 특별전'을 9월 30일까지 기획전시한다.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활동과 순절한 선인들의 기록 △남

한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역사, 지리, 군사, 승군 자료 △병자호란의 실상을 전하는 한글과 한문 일기 △오학사(五學士) 관련 자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병자호란 자료 등을 국내외에서 수집해 전시로 기획했다. (031)-744-3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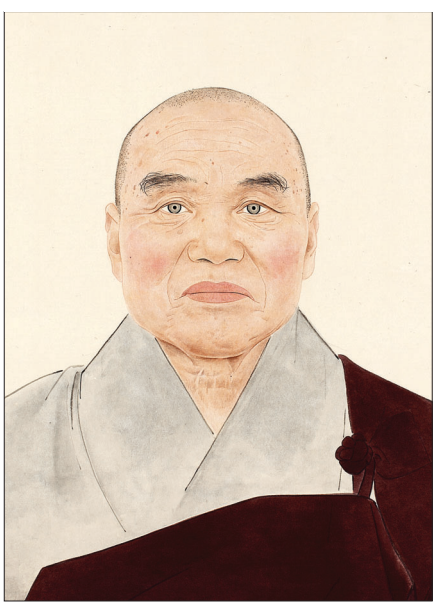
이밖에도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가장 한국적인 그릇을 선보이는 도예가 김진성 씨의 작품을 작은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 있으며 수도사 괘불명화를 10월 20일까지 공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nbul.com

초상화로 표현하는 우리 시대의 '틈'

김호석 작가 개인전 8월 16일까지

성철 스님·법정 스님 초상화도 전시



김호석 작가의 '성철 스님' 초상화

현대사회에서 틈은 결핍 또는 미완성을 상징한다. 빠르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결핍을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강박적으로 채우고자 한다. 하지만 김호석 작가에게 틈은 충만의 공간이자 잉태의 공간이다.

틈은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며, 또한 새로운 것들이 자라 채워질 빈 공간인 것이다.

김호석 작가의 초대전 '틈'이 7월 6일~8월 16일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시실 및 현대미술전시실에서 열린다. 1979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상으로 데뷔해 수묵화운동 등을 이끌며 한국화의 전통적인 형식과 방법을 고수해온 김호석 작가는 오랜 한국 전통의 화법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해석해 낸 작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작가는 전통적으로 임금 및 사대부의 초상화 등에서 나타나는 전신사조 기법을 사용하는데, 일상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에 적용했다.

가까이에 있는 가장 한국적인 삶을 한국의 전통적인 기법과 형식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항상 그가 담아내는 장면 또는 인물과는 틈을 두고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그려냈다. 이번 전시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가 틈을 두고 바라본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대형전시를 가진 바 있는 작가는 이후의 16년간 작업을 총망라하는 작품 120점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등의 초상화도 만날 수 있으며 법정 스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 10여 점도 선보인다. (02)3290-1513

정혜숙 기자

독일인들도 연꽃 감상하며 108배를

재독작가 김현수,

원혜서 설치미술 '백련' 전시

백련 연꽃이 독일 뮌헨 시청 뒤 마리엔호프에 활짝 피었다. 재독 작가 김현수 씨가 설치 미술 '백련-범문화적 의식'을 선보여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특수코팅으로 조립된 지름 5m 50cm, 높이 2m 60cm 백련을 중심으로 108배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작가의 독특한 발상이 돋보여 눈길을 끈다.

연꽃은 불교문화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집트 등에서도 상징적 꽃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전시를 통해 연기법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고교학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해 보니 고대문화에서 연꽃은 거의 태양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열매와 꽃을 동시에 맺는 거의 유일한 꽃인 연꽃은 과



재독작가 김현수 씨는 설치미술 '백련'을 독일인들에게 선보이고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사진제공=채희석 작가

거 현재 미래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시공간을 넘어 정신적 통합 그리고 연 기법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작가는 작품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108배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108배를 하며 마음을 닦자는 뜻에서 시작한 퍼포먼스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행위(?)를 하냐고 의아해하며 질문을 하던 시민들도 108배를 해보고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요. 모두가 머리로 맑아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6월 24일 오프닝 이후 두 번의 108배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전시 기간 동안 3번 정도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8월 15일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08배 퍼포먼스를 펼쳐 그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전남 문화 예술 재단과 '베를린 한국 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연꽃 작품은 한국으로 운송된다. 또한 뮌헨시와 공동으로 내년 한국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신간!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알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일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원 구분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 죽 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원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마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ly.co.kr**